

2023. 4. 6.(목) 조간용

이 보도 자료는 2023년 4월 5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담당관

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: 10매

디자인정책담당관	이창현	02-2133-2700
공공디자인사업팀장	강호진	02-2133-2720
담당자	김은지	02-2133-2722

서울시,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... 디자인으로 해결하다

- 서울시, 시립보라매·문래청소년센터 '청소년 문제해결디자인' <마음풀> 조성
- 청소년 10명 중 4명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...빠른 자극에만 반응, 현실에 무감각해져
- 시청각 자극 디지털 매체에서 벗어나 식물 통해 균형적 뇌 발달 유도 공간 개발
- 기 개발된 사례, 정서적 안정·교우관계 개선·자존감 향상 등 효과 보여
-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치료 프로그램과 결합한 학생 주도적 활동...사업효과 기대

서울시가 스마트폰,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매체에 과도하게 노출돼 있는 청소년들이 자연을 보며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공간 <마음풀>을 조성했다.

○ '학생들이 언제든지 찾아가 마음을 풀 수 있는 공간, 풀이 자라나는 공간, 마음을 충전(full)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자'는 의미를 담아 <마음풀>로 이름 붙였다.

현대 사회의 청소년 문제 중 하나는 스마트폰, 인터넷 과의존이다.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는 시청각 감각을 과도하게 자극하고 촉각, 후각과

뇌기능을 떨어뜨려 인지, 학습능력 저하와 주의력 결핍 등을 유발한다. 전문가들은 특히 청소년기에는 한 가지 감각이 아닌 오감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, 식물과 자연을 매개로 한 자극이 불균형한 감각을 통합하고 잠자고 있던 신경을 활성화 한다고 말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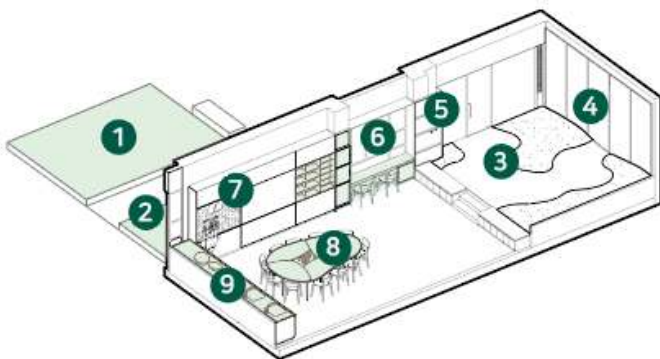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「2022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」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 위험군의 비율은 23.6%로 전년 대비 0.6% 감소했다. 그에 반해 대상 중 유일하게 청소년은 전년 대비 3.1% 증가한 40.1%로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현상이 심화되었다.
-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됐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 대인관계, 건강,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.
- 서울시는 2018년부터 ‘청소년 문제해결 디자인’의 일환으로 〈마음풀〉 조성을 시작해 학생들의 일상 공간인 학교에 식물을 들여왔다.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자연을 매개로 감각을 고르게 자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. 그 결과, 학생들이 정서적 안정을 찾고 교우관계가 개선되는 등 좋은 성과를 보였다.
- ‘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’가 2018년 조성된 ‘전일중’ 사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,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던 학생들이 〈마음풀〉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안정, 교우관계 및 대인관계 개선, 자존감 향상 등의 변화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.
- 서울시는 '18년도 전일중을 시작으로, '19년 정의여고, 동일여고에 이

어 학생들의 오감을 자극하는 열린 공간인 ▲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(동작구) Play Ground’ ▲시립문래청소년센터(영등포구) ‘Plant Lab’를 완성했다.

- 학생들을 중심으로 희망자를 모집해 자체 운영협의체를 조직하고, 사업 초기부터 함께했다. 운영협의체는 마을계획단, 환경봉사단, 방과후 아카데미 등 소속 청소년과 인터넷중독상담센터 교사, 학부모자문단, 지역 커뮤니티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희망 활동, 공간구성, 운영관리 방법 등을 함께 논의하며 공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.

<식물과 함께 놀며 대화하고 즐기다-‘Play Ground’,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>

-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는 청소년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열린 휴게공간이었지만, 이용자는 많지 않아 방치되고 있었던 공간을 <마음풀> ‘Play Ground’으로 새롭게 탄생시켰다. 인터넷중독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식물과 함께 놀며 대화하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냈다.
- 공간은 ‘푸룻푸룻’ 텃밭 및 ‘소곤소곤’ 정원, ‘소록소록’ 숲, ‘속닥속닥’ 거울, 마음상자, ‘사각사각’ 책상, 마음싱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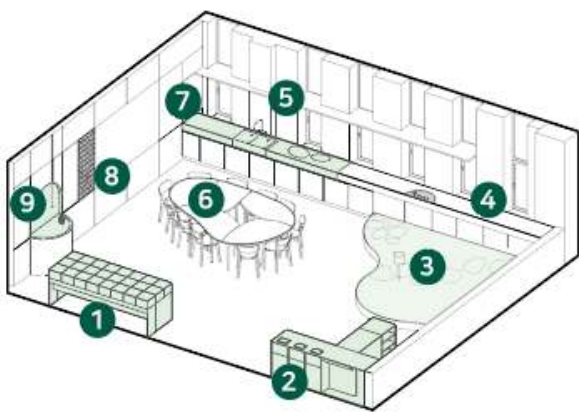


-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1 '푸룻푸룻' 텃밭 | 6 '사각사각' 책상 |
| 2 '소곤소곤' 정원 | 7 정원도구 수면실 |
| 3 '소록소록' 숲 | 8 '꿈틀'책상 |
| 4 '속닥속닥' 거울 | 9 마음싱크 |
| 5 마음상자 | |

- ‘푸룻푸룻’ 텃밭은 채소 씨앗을 심거나 수확하는 등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식물 모종이나 실내에서 키우기 어려운 실외 식물을 재배할 수 있다. ‘소곤소곤’ 정원은 입구 정원으로 휴게공간으로 자유롭게 이용하며 혼자 여유를 즐기기도 하고, 탁 트인 녹색공간에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.
- ‘소록소록’ 숲은 숲길을 걸으며 자연을 경험하는 듯한 제3의 공간으로 식물재배 환경을 다양하게 바꿀 수 있는 디제잉 시스템인 ‘감각 플레이어’를 통해 비와 안개, 소리를 연출하여 감각을 극대화할 수 있다. 한쪽 벽면에는 ‘속닥속닥’ 거울이 부착되어 있어 식물을 포함한 다양한 피사체가 거울에 반사되는 모습을 즐기며 친구들과 대화하고 움직이며 사진도 찍고 마음껏 낙서하고 지우며 다양한 자기표현을 하는 동시에 다양한 감각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.
- ‘사각사각’ 책상은 혼자서 휴식하거나 감정카드를 활용해 내 마음을 돌이켜보고 일기나 편지를 준비된 다양한 필기류와 도장, 타자기를 이용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. 작성한 편지는 ‘마음상자’에 담아 보관하고 희망자에 한해 익명으로 전시도 가능하다.
- ‘마음싱크’는 야외 텃밭, 정원활동과 실내 프로그램의 재료 및 싱크를 갖춘 준비 공간으로 나무책 레시피, 테라리움 도시락, 마음톡톡 레시피 등을 제공한다. 이 도구들은 ‘정원도구 수면실’에 보관할 수 있다.
- ‘꿈틀’책상은 <마음풀>의 모티프를 적용한 유기적인 형태의 모듈형으로 활용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구성이 가능하다.

<자연과 함께 다양하게 감각하고 만든다-‘Plant Lab’, 시립문래청소년센터>

- 시립문래청소년센터는 로비 한쪽을 교실로 구성하였지만 오픈된 공간으로 그 활용도가 낮았던 공간을 〈마음풀〉 ‘Plant Lab’으로 새롭게 탄생시켰다. 대단지 아파트에 둘러 쌓여 자연을 접할 기회가 부족했던 학생들에게 식물과 함께 다양하게 감각하며 자연순환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냈다.



- 1 '리플레이' 팔레트
- 2 '리플레이' 우체통
- 3 '소록소록' 숲
- 4 '속닥속닥' 거울
- 5 마음싱크
- 6 '꿈틀'책상
- 7 마음알림 게시판
- 8 '씨앗톡톡'
- 9 '토독토독' 방앗간

- 리사이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리플레이 팔레트와 우체통, '소록소록' 숲, 마음알림 게시판, '토독토독' 방앗간 등으로 식물을 직접 키우는 과정에 재활용 재료를 활용하고 작품을 공유, 소통하며 다감각을 경험하는 공간으로 구성하였다.
- '리플레이 팔레트'는 입구에서 〈마음풀〉을 처음 접하는 공간으로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만든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이다. 다양한 폐자원을 모으는 '리플레이 우체통'은 리사이클 작품 제작에 활용된다.
- 한쪽벽면에는 텃밭에서 키우고 수확한 씨앗을 전시·저장하는 씨앗라이

브러리 ‘씨앗톡톡’과 활동사진을 전시하고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‘마음알림 게시판’이 구성되어 있다.

- ‘토독토독 방앗간’은 외부에서 마음풀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간으로 모션센서에 의해 물방울이 떨어지며 물레방아가 계속 돌아가는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다.

- 이번에 조성된 ‘마음풀’ 2개소는 식물을 매개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학생들이 한 가지 감각만이 아닌 오감을 골고루 쓰면서 성장하는 공간으로 운영된다. 특히 학생들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여 더 알차고 재미있는 공간으로 변화시켜나갈 예정이다.
 -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는 ‘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’ 및 학교 내 상담 프로그램 ‘Wee클래스’와 연계하여 문제행동 분석을 통해 스스로 치유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심리적·정서적·행동적 회복과 성장 지원한다.
 - 시립문래청소년센터는 디지털 기기에 의존도가 높고 다양한 문화활동의 기회가 적은 발달장애청소년에게 다감각 경험을 제공하여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심리적 안정 및 결과물에 대한 만족감을 통해 자존감 향상 도모한다.
 -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 프로그램도 방학특강을 활용하여 연 4회 운영되며, 서울시 50+ 자원봉사자를 통해 식물을 관리할 예정이다.

- 한편 서울시는 공간을 이용하게 될 시립보라매·문래청소년센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간에 대한 반응 및 효과성을 평가해 향후 <마음풀> 등 ‘청소년 문제해결 디자인’ 확산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.

- 또한, 공간의 구성요소, 운영 매뉴얼 등을 관련 기관 및 부서에 공유하여 보다 나은 공간들을 조성하고,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.

-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“이번 〈마음풀〉 공간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연을 매개로 한 다감각 경험으로 마음을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”라며, 서울시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활용과 확산이 용이한 ‘청소년 문제해결 디자인’을 개발해 많은 학교 및 기관에서 적용 및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”고 말했다.

〈붙임〉 마음플 사진(원본 별도송부)

□ 마음플 조성 전

○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



센터 외부(입구 및 텃밭)



1층 열린 휴게공간

○ 시립문래청소년센터



1층 로비



프로그램 운영 교실

□ 마음플 조성 과정



아이디어 워크숍



‘마음플’ 시범운영

□ 마음플 조성 후

○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



‘꿈틀’책상, 마음싱크, ‘사각사각’책상



주출입구, 입구 사이너지



마음싱크

○ 시립문래청소년센터



‘마음폴’ 입구, ‘토독토독’방앗간, ‘리플레이’팔레트



‘소록소록’ 숲



‘꿈틀’책상, ‘씨앗톡톡’, 마음알림 게시판